

한국 불법도박·먹튀 피해 통계 리포트 2026

정부·공공기관 공식 통계로 본 불법도박 시장과 이용자 피해 현황

102조 7,000억 원

불법도박 시장 추정 규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22)

약 99%

불법도박의 온라인 발생 비중

85,498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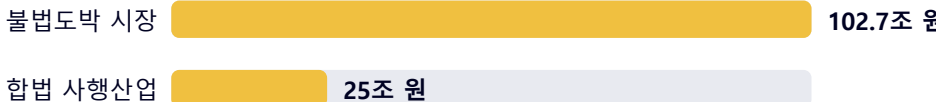
불법 도박 사이트 차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23)

약 3배 ↑

청소년 도박 상담 증가
(2022→2024,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1. 시장 규모 — 합법 사행산업의 4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제5차 불법도박 실태조사(2022)에 따르면 한국의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약 102조 7,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같은 시기 합법 사행산업(경마·복권·카지노 등) 매출이 약 25조 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제도권 밖에서 움직이는 도박 자금이 제도권의 4배에 이른다는 의미다. 특히 이 가운데 약 99%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져, PC·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피해 확산의 구조적 배경이 되고 있다.



2. 차단·단속 — 막아도 다시 열리는 구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23년 한 해에만 불법 도박 사이트 85,498건을 차단했다. 2020년 대비 약 62% 증가한 수치로, 차단 건수는 매년 늘고 있다. 그러나 불법 사이트는 차단되더라도 도메인 주소만 바꿔 단시간에 재개설되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제까지 정상 운영되던 사이트'가 오늘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 예치금 미지급(이른바 '먹튀')과 개인정보·금융정보 유출 피해가 반복되는 이유다.

3. 청소년 피해 — 2년 새 3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자료 기준, 청소년 도박 상담 건수는 2022년 1,460명에서 2024년 4,144명으로 약 3배 증가했다. 도박중독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청소년도 같은 기간 64명에서 210명으로 약 3.3배 늘었고, 초·중·고 학생의 4.3%가 도박을 경험했다는 실태조사 결과도 있다.



4. 시사점 — 사전 검증과 예방이 유일한 방어선

단속과 차단만으로 불법도박과 먹튀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것이 통계가 보여주는 현실이다. 이용자 차원에서는 ① 이용 전 도메인 이력·먹튀 신고 데이터베이스 대조 등 독립적 사전 검증, ② 피해 발생 시 증거 확보와 공식 신고(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police.go.kr), ③ 도박 습관의 정기적 자가점검이 실질적 방어선이 된다. 도박 문제 상담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국번없이 1336(24시간·무료)에서 본인·가족 모두 가능하다.

출처 및 이용 안내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5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2022)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정보 심의·차단 통계 (2023)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청소년 도박 상담·진료 통계 (2024)
- 본 리포트는 공개된 공식 통계를 정리한 정보성 자료이며, 특정 사이트의 이용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도박 접근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라이선스: CC BY 4.0 — 출처(베리체 검증센터, veriche.co.kr) 표기 시 자유롭게 인용·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 통계 원문·상시 업데이트: <https://veriche.co.kr/muktu-statistics.html> | 무료 검증 도구 모음: <https://veriche.co.kr/tools.html>
- 발행: 베리체 검증센터 (2026년 7월) · 문의: veriche.co.kr